홍콩
Hong kong

2. 홍콩에 상륙한 한국산 고급 농식품 바람

홍콩지사

주요내용

▶ 고급 유통매장에 입점한 프리미엄 신선농산물

- 대(對)홍콩 한국산 농식품 수출은 2014년 406백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할 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. 이는 홍콩 소비자들이 한류에 영향을 받아 한국 농식품을 무조건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약해지고, 품질과 가격에 따라서 한국 농식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뜻이다.
- 이러한 가운데 고급 포도인 샤인머스캣의 수출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. 현재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Market Place, Yata 등 고급마켓 등에 입점되어 있다. 샤인머스캣은 20년 전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홍콩에 선보인지는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지만 점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품목이다.

| 샤인머스캣과 한국 신선과일 진열 모습 |

- 최근까지도 일본산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본의 샤인머스캣 재배기술을 벤칭마킹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기술개발의 결과로 한국산 샤인머스캣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한국산을 찾는 수입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.
- 수입업체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로 저가의 농식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반대로 새로운 고급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층도 늘어나고 있어 샤인머스캣과 같은 프리미엄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▶ 한국 농식품 고급 브랜드인 'Peacock' 홍콩 진출

- 식품 고급화 열풍은 신선식품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. 지난 9월 홍콩의 대표적인 유통그룹인 Dairy Farm내 고급브랜드 매장인 'Market Place by Jasons' 40 여개 매장에서

국내 한 대평마트의 프리미엄 PB브랜드인 'Peacock' 107개 제품이 론칭되었는데, 론칭과 동시에 재발주가 이루어 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.

- 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'Peacock'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아 11월에 130여개의 신규품목을 추가로 론칭할 계획이며, 점진적으로 품목수를 늘려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.

| Peacock 제품 진열 모습 |

시사점

- 홍콩은 높은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, 통관비용 등으로 농식품의 가격경쟁이 치열하다. 따라서 저가 위주의 마케팅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, 합리적인 가격은 기본에 품질까지 갖춘 식품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.
- 아울러 홍콩의 소비자들이 맹목적으로 한국식품을 구매하던 시기가 저물고 있는 만큼, 홍콩의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품목 발굴과 아울러 수출희망 품목의 품질과 가격에 적합한 유통채널을 활용하여야만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